오픈소스의 역사 90년대

리눅스

1990 년대에는 리눅스 커널\*이 리누스 토발즈(Linus Torvalds)에 의해 탄생한다. 리눅스 커널은자유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를 채택해 소스 코드를 공개했고, 많은 개발자들을 모았다. 리눅스 커널은 기존에 있던 GNU 프로젝트의 GNU 허드보다 좋은 평가를 받아 개발자들은 리눅스 커널에 더욱 끌렸고, 후에 GNU 운영 체제와 리눅스 커널의 결합은 1991년에 최초의 완전한 자유 소프트웨어 운영체제가 되었다.

.com

90년대 중반에는 자유 소프트웨어로 웹 서버를 만들었다. 자유 소프트웨어인 Apache HTTP Server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웹 서버 소프트웨어가 되었다.

오픈 소스

1997년 에릭 S 레이몬드(Eric S. Raymond)(이하 레이몬드)가 좋은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한 교훈이 담긴 책인 ‘The Cathedral and the Bazaar’을 출판하고 그 책이 주목을 받으면서 Netskape Communications Corporation이 인터넷 제품군을 자유 소프트웨어로 공개하는 동기를 부여했다. Netscape가 제품을 자유 소프트웨어로 공개하면서 사람들은 자유 소프트웨어를 산업에 가져오는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1998년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을 하는 사람들 중 일부가 ‘오픈 소스’ 라는 단어를 만들어냈고, 이후 레이몬드와 사람들은 그 단어를 알리는 일을 시작했다. 이 단어는 기술 출판사 Tim O’Reilly가 1998년에 연 행사에서 큰 호응을 얻고, ‘프리웨어 서미트 (Freeware Summit)’로 불리다가 “오픈 소스 서밋 (Open Source Summit)”으로 명명되었다. 그 행사에는 레이몬드를 포함한 여러 사람이 모였는데, ‘자유 소프트웨어’라는 단어로 인해 혼란이 생겼다. ‘소스웨어’, ‘오픈 소스’가 주장되었고 투표를 해 ‘오픈 소스’가 채택되었다.

이후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가 대중화되면서 Microsoft같이 오픈 소스 방식이 아닌 산업계는 위협을 느끼기도 했다.

리눅스 커널

리눅스 커널은 1991년에 [리누스 토르발스](https://ko.wikipedia.org/wiki/%EB%A6%AC%EB%88%84%EC%8A%A4_%ED%86%A0%EB%A5%B4%EB%B0%9C%EC%8A%A4)에 의해 생긴 말이다. 일찍이 [미닉스](https://ko.wikipedia.org/wiki/%EB%AF%B8%EB%8B%89%EC%8A%A4) 커뮤니티가 리눅스 커널에 코드와 개념을 제공하였다. 그 당시 [GNU 프로젝트](https://ko.wikipedia.org/wiki/GNU_%ED%94%84%EB%A1%9C%EC%A0%9D%ED%8A%B8)는 [자유 소프트웨어](https://ko.wikipedia.org/wiki/%EC%9E%90%EC%9C%A0_%EC%86%8C%ED%94%84%ED%8A%B8%EC%9B%A8%EC%96%B4) 운영 체제에 필요한 요소를 많이 만들어 냈지만 자체 커널 [GNU 허드](https://ko.wikipedia.org/wiki/GNU_%ED%97%88%EB%93%9C)는 완전하지 않았고 이용성이 없었다. [BSD](https://ko.wikipedia.org/wiki/BSD) 운영 체제는 법적 문제로부터 헤어나오지 못했다. 이는 초기 버전의 제한된 기능에도 불구하고 [리눅스](https://ko.wikipedia.org/wiki/%EB%A6%AC%EB%88%85%EC%8A%A4)가 새로운 운영 체제를 사용하기 위한 프로젝트로부터 코드를 채용한 개발자들과 사용자들을 빠른 속도로 모았다는 것을 말해 준다.

커널이란?

운영 체제의 핵심이 되는 부분

Unix 계열 운영 체제의 커널인 리눅스 커널은 1994년에 GNU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 버전2 아래에서 공개된다. 대표적인 오픈 소스의 본보기이다.

운영 체제로 리눅스 커널을 쓰는 기업, 제품

Google Android, Firefox OS, Nokia Maemo등 여러 휴대폰 운영 체제로 리눅스 커널이 쓰이고 있다.

오픈 소스 이니셔티브 (OSI, Open Source Initiative)

오픈소스 이니셔티브는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일종의 캠페인으로, 1998년 2월에 Netscape Communications Corporation에 대한 소스 코드를 공개한 것에 대해 영감을 받아 레이몬드를 포함한 여러 사람이 모여 만들었다.

자유 소트프웨어와 OSI의 관계

현대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https://en.wikipedia.org/wiki/Free_software_movement)과 오픈 소스 이니셔티브는 [유닉스](https://en.wikipedia.org/wiki/Unix) 와 [인터넷](https://en.wikipedia.org/wiki/Internet) 자유 소프트웨어, [해커 문화](https://en.wikipedia.org/wiki/Hacker_(programmer_subculture)) 의 공통된 역사에서 태어 났지만 근본적인 목표와 철학은 다르다. 오픈 소스 이니셔티브는 창립 멤버 [마이클 티에 만](https://en.wikipedia.org/wiki/Michael_Tiemann)([Michael Tiemann](https://en.wikipedia.org/wiki/Michael_Tiemann))의 말에 “자유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도덕적 대립 태도”를 버리고대신 “실용적이고 비즈니스적인” 오픈 소스 아이디어를 장려하기 위해 "오픈 소스"라는 용어를 선택했다.

에릭 S 레이몬드(Eric S. Raymond) 1957.12.4

미국의 소프트웨어 개발자이자 컴퓨터 관련 책 저자이다.

The Cathedral and the Bazaar (성당과 시장)

The New Hacker’s Dictionary (새로운 해커 사전)

1996년 레이몬드는 오픈 소스 이메일 소프트웨어 “popclient”를 인수하여 Fetchmail로 이름을 바꾸었다. 이 경험이 있은 후 그는 The Cathedral and the Bazaar (성당과 시장)을 출판했다.

레이몬드는 [리누스 토발즈에](https://en.wikipedia.org/wiki/Linus_Torvalds) 의해 영감을 얻은 "[리누스의 법칙 (Linus Law)](https://en.wikipedia.org/wiki/Linus%27_Law)" 이라고 불리는 [경구](https://en.wikipedia.org/wiki/Aphorism)를 [썼다](https://en.wikipedia.org/wiki/Linus_Torvalds) . "Given enough eyeballs, all [bugs](https://en.wikipedia.org/wiki/Software_bug) are shallow.(충분한 눈알만 가지고 있으면 모든 버그는 얕다.)" [[17]](https://en.wikipedia.org/wiki/Eric_S._Raymond#cite_note-17) 이것은 레이몬드의 책 The Cathedral and the Bazaar (성당과 시장)에서 처음으로 나타났다.

1999 년 초에 OSI의 공동 설립자인 Perens 는 FSF의 지지자와 의견 차이 때문에 FSF 지지자 와 OSI 사이에서 불거지고 있던 "분열"에 반대했다. 리차드 스톨만은 OSI가 실용주의적 초점과 자유 소프트웨어의 기본이 되는 “자유”에 중점을 둔 것을 무시한 것에 대해 비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톨만은 자신의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과 오픈 소스 이니셔티브를 동일한 자유 소프트웨어 공동체 내에서 별도의 단체로 묘사했으며 철학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오픈 소스와 자유 소프트웨어의 지지자는 "둘 다 실제 프로젝트에서 함께 작동한다"고 인정했다.